• 영역 •

정 답

1	⑤	2	②	3	④	4	⑤	5	⑤	6	④	7	①	8	⑤
9	③	10	④	11	②	12	②	13	③	14	②	15	④	16	①
17	②	18	⑤	19	③	20	②	21	④	22	①	23	④	24	③
25	④	26	④	27	③	28	①	29	④	30	①	31	①	32	②
33	①	34	⑤	35	①	36	⑤	37	④	38	⑤	39	③	40	①
41	④	42	①	43	⑤	44	④	45	①	46	③	47	⑤	48	④
49	②	50	②	51	②	52	⑤	53	①	54	③	55	⑤	56	⑤
57	③	58	②	59	④	60	③								

해 설

<1 > 이제부터 여러분은 어느 식물원 안내원의 설명을 듣게 됩니다. 문제지에 주어진 그림을 보면서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내원(여) : 우리 식물원을 찾아 주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야생 풀꽃을 모아 놓은 녹화원입니다. 이곳에는 모두 300여 종의 야생 풀꽃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먼저 '쇠비름'이란 이름을 가진 이 풀을 보시죠. 잎이 한 쌍씩 마주 나 있는데, 두 잎이 만나는 쪽으로 좁아지면서 짧은 잎자루를 이룬 모양이 말의 앞니와 비슷해서 '마치초(馬齒草)'라고도 부릅니다.(1초 사이) 저~기 귀엽게 생긴 꽃 보이시죠. 그건 '달개비'라고 합니다. 달개비는 꽃의 수술이 특이한데, 두 장의 큰 잎처럼 보이는 부분과 십자 모양으로 꽃처럼 보이는 부분이 모두 수술이에요.(1초 사이) 그 옆에 있는 풀은 '괭이밥'이라고 합니다. 하트 모양의 잎사귀 외에도, 길쭉하고 갸름한 모습으로 가지에 매달려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것은 씨방입니다.(1초 사이) 다음에는 이쪽을 한 번 보실까요? 줄기가 위로 쭉 뻗고 잎이 넓으면서 그 가장자리가 들쭉날쭉하죠? 이 풀이 명아줍니다. 고전시가에 가끔 등장하는 청려장(靑藜杖)이 바로 이 명아주로 만든 지팡입니다. 풀로 지팡이를 만든다는 것이 신기하실 텐데, 명아주는 성장이 빨라서 큰 것은 2m까지도 자랍니다. 자, 이제 다른 풀들도 자유롭게 둘러보세요.

1.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안내원의 설명 중, ①은 '한 쌍씩 마주 나 있는 잎이 밑 부분으로 갈수록 좁아지면서 짧은 잎자루를 이룬 모양이 말의 앞니와 비슷하다'는 말에서, ②는 '두 장의 큰 잎처럼 보이는 부분과 십자 모양으로 꽃처럼 보이는 부분'이란 말에서, ③은 '하트 모양의 잎사귀 외에도, 길쭉하고 갸름한 모습으로 가지에 매달려 있는'이란 말에서, ④는 '줄기가 위로 쭉 뻗고 잎이 넓으면서 그 가장자리가 들쭉날쭉하죠.'란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꽃이 두 개 피어 있는 것(⑤)을 안내원이 설명하지는 않았다.

<2번> 이번에는 국어 수업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답지까지 다 들은 후에 푸는 문제이니,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남) : 이제 선생님이 교과서의 한 부분을 읽을 텐데, 잘 듣고 이 글이 전달하려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영어를 들여오는 일은 우리 개구리들을 돌보지 않은 채 황소개구리를 들여온 우를 또다시 범하는 것이다." 자, 누가 이 말의 의미를 말해 볼까요?(학생들이 설왕설래(E.))

학생(여) : 영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 맞아요. '영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글'을 '우리 개구리'에 '영어'를 '황소개구리'에 빗대어 표현하니까 의미가 좀더 구체적으로 잘 전달되죠? 이처럼 두 대상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어 말하면, 의미가 친숙하고 쉽게 전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방법으로 말하기를 직접 해 보도록 합시다. 내용은 독서에 관한 것으로 하죠.(사이)

자, 이제 학생들의 발표를 들려 드립니다. 선생님이 설명한 방법으로 말하기를 한 학생은 몇 번째 학생일까요?

<첫 번째 학생입니다.> 삶의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선인들의 지혜를 담고 있는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학생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인생의 역경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학생입니다.> 연예계 스타를 주인공으로 하여 독자의 흥미만을 자극하는 책들은 창의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학생입니다.> 경쟁 사회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지식 기반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책들을 선택해 읽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학생입니다.> 한 때의 유행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책보다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온 책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2. [ ] 유추의 방법으로 말하기를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수업에서 선생님은 교과서에 있는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유추를 사용한 말하기'에 대해 설명하였다. 선생님의 설명대로 말하기를 한 학생은 두 번째 학생이다. 이 학생은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인생의 역경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음'을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3번> 이 학생들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초인종 소리(E.)

영희(여) : 누구세요?

성민(남) : 나야, 성민이.(문 여는 소리(E.))

영희 : 왔구나, 들어 와.(개 짖는 소리(E.)) 복슬아, 조용히 좀 해.

성민 : 어, 강아지가 있네? 언제부터 키웠어?

영희 : 3주일 정도 됐어. (개 짖는 소리(E.)) 조용히 좀 하라니까.(개 짖는 소리(E.)) 이거 봐, 애가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속상해.

성민 : 그래?

영희 : 애가 소파에 앉아 있으면 나는 앉지도 못해. 주인이 나타나도 꼼짝도 않는 개야. 참, 너 애완견 키운 지 꽤 오래 됐잖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좀 해줘.

성민 : 개는 본능적으로 서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서열이 낮다고 여기는 식구가 있으면 만만하게 봐. 그러니까 밥 줄 때, 너부터 식사를 마친 다음에 주도록 해. 산책할 때도 너보다 앞서서 가지 못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몇 번만 훈련을 시키면 말을 잘 들을 거야. 개는 복종 본능을 갖고 있거든.

영희 : 아, 그렇구나, 몰랐어.

성민 : 야, 애도 리모컨 같은 것들을 곧잘 물지 않냐?

영희 : 그래 맞아.

성민 : 그런 습성은 사냥 본능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잘 훈련시켜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게 길들이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어. 훈련을 시킬 때는 칭찬과 포상을 많이 해 주는 게 중요해. 개는 자기의 행동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면 잘 따르는 반면, 자신을 못 살게 구는 사람에게는 경계심을 갖고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하거든.

영희 : 아, 정말 고마워. 너의 말을 주욱 정리해 보면~

3. [출제의도] 대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화자의 예상되는 반응을 적절하게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성민이 영희에게 전달한 정보 중에 '개가 자기 서열을 높이기 위해 복종 본능을 감추고 있다.'라는 내용은 없다. 성민은 개가 복종 본능을 갖고 있어 훈련의 결과에 따라 말을 잘 들을 수 있음을 말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④는 영희가 반응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오답풀이] ①, ②, ③, ⑤는 모두 성민의 말에 나타나 있는 정보를 근거로 영희가 반응한 내용이므로 적절한 것들이다.

<4번> 이번에는 '청소년 문화'에 대한 교내 방송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다이어트 비결, 몸짱이나 얼짱 되는 비법

외모 지상주의가 널리 퍼지고 있어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보는 어떤 잡지의 경우에는, '날씬 프로젝트'라는 제목 하에 효과는커녕 각종 부작용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난 다이어트법을 마치 대단한 비법인 것처럼 소개해 우리를 그릇된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는 기성세대의 얄팍한 상혼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그릇된 정보들까지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태도에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도 잡지 등에 실리기만 하면, 쉽게 믿고 무비판적으로 상술에 이끌려 다닙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들은 어른들에 비해 외부의 자극에 쉽게 감성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행이라면 그릇된 정보까지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자제하고, 지금부터라도 그 가치를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상술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 ] 화자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화자는 방송에서 청소년들에게 널리 퍼지고 있는 외모 지상주의를 문제로 제시하고, 그 원인이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그릇된 정보들까지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청소년들의 태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화자는 그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청소년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들의 가치를 판별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화자가 방송에서 궁극적으로 주장한 내용은 청소년들이 정보를 주체적으로 판단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5~6번> 이번에는 대담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남) : 오늘은 '안티 문화'에 관해 정현아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여)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요즘 들어 '안티 미스코리아, 안티 수능, 안티 친일파' 등, '안티'란 말이 부쩍 많이 쓰입니다. '안티(Anti)'는 반대, 배척, 대항의 의미를 갖는 말인데, '비판'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교수 : 예, 비판은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것이고 안티는 무엇에 반대한다는 개념으로, 안티가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반대한다는 차원은 아니고요.

사회자 : 비판보다는 안티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군요. 그럼, 안티는 왜 생겨날까요?

교수 :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이런 상태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소수의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가, "나는 반대한다."라는 주장을 하며 안티로 나선다고 할 수 있겠지요.

사회자 : 네, 사회적 약자가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안티가 생긴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저는 안티 문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싫어하는 연예인을 집요하게 공격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욕설 섞인 댓글을 올리거나 하는 것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교수 : 요즘 안티 문화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은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 반대를 위한 반대, 도를 넘어서는 인신 공격 등의 사례들이 많지요. 그런데 진정한 안티 문화라면 상대방이 스스로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공감하도록 이끌어 현실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자 :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된 점을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네요. 그럼, 바람직한 안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교수 : 안티에는 상대에 대해 '기분 나쁘다'는 감정, '나와 다르다'는 이질성에 대한 거부감 같은 심리가 작용합니다. 흔히 이 같은 심리만을 안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진정한 안티가 아닙니다. 바람직한 안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 의식을 갖고 여론을 형성해 가면서 권력을 압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티는 강자나, 기득권에 대한 저항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5. [출제의도] 정보를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문제로, 대담에서 다루고 있는 중심 화제들을 찾는 문제이다.

①은 교수의 두 번째 말에서, ②는 네 번째 말에서, ③은 세 번째 말에서, ④는 다섯 번째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안티 문화가 확산되는 과정(⑤)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6. [출제의도] 방송 대담에서 사회자와 대담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대담에서 사회자는 교수가 언급한 말을 받아서 요약한 다음, '안티 문화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든가, '우리나라는 아직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면서 대담을 이끌어가고 있다. 따라서 사회자의 말하기 방식은 ④이다.

7. [출제의도] 글쓰기의 착상과 관련한 연상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앞의 그림에서 까치밥을 남겨두는 푸근한 인정을 느낄 수 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이다. 뒤의 그림은 농사를 망친 까치를 쫓는 농부의 그림이다. 이 둘을 합하면, 같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처지나 경우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다.

[오답풀이] ② 뒤 그림을 통해, 까치를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로 생각할 수 없다. ③ 앞 그림을 통해 공멸을 생각할 수는 없다. ④ 앞 뒤 그림이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앞 그림에서 나눔의 미덕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현대와 과거의 차이라고 볼 수는 없다.

8.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 단계에서 '조건'에 따라 적절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내용의 조직은 목차의 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⑤를 살펴보면, 주요 목차의 조직이 적절하지 않다. 문자로서의 과학적 원리를 살펴보는 보고서(발표)가 아니라,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이나 반포 경위, 훈민정음 명칭의 변화 과정 등 주변 정보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⑤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시각 자료가 적절하게 동원될 수 있다. 예컨대 발음 기관의 모양과 글자의 모양(ㄱ, ㄴ, ㅁ, ㅅ, ㅇ 등)이 닮아 있으므로(상형의 원리), 발음 기관의 모양을 그린 시각 자료를 동원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다.

9. [출제의도] 수집된 글감을 설정된 주제에 맞게 평가하여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설정된 주제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인데, 'ㄷ'은 현재의 사이버 공간이 갖는 문제점을 제시한 글감이고, 'ㄹ'과 'ㅁ'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효과와 찬성 여론에 관한 글감이므로 주제에 맞는 글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ㄱ'과 'ㄴ'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하는 글감이며, 'ㅂ'은 제도 도입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10. [출제의도]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2문단의 '가수들은 애창곡이 되겠다는'은 '가수들은 애창곡을 만들겠다는'이 바른 표현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고 나면' 앞에는 '부침(浮沈)하는 것이다'의 주어인 '가수는'이 부당하게 생략되어 있어 역시 서술어와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④는 잘못된 평가를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보기>는 대중가요의 노래와 가수들의 인기가 항상 변해서 늘 새로운 노래와 가수들이 등장하므로 가수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제목은 글의 내용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다. ② 1문단은 '부침이 심한 대중가요', 2문단은 '하루아침에 부상(浮上)하는 가수', 3문단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가수'의 내용을 적절하게 서술하고 있다. ③ 내용 전개에 비약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2문단의 '부침(浮沈)'은 '부상(浮上)'을, 3문단의 '자제'는 '자만'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11. [출제의도] 제시된 조건에 따라 글을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제시된 조건은 게시판에 올라온 깜찍이의 글에 동조할 것, 별명이 갖는 의미를 설명할 것, 비유적 표현을 활용할 것 등 세 가지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은 ②이다. ②는 친구에게 별명을 붙여 주자는 제안에 동조하면서, 별명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 ] ① '나는 (영원한) 너구리'라는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③은 별명이 조롱이나 비아냥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깜찍이의 제안에 동조하는 글이 아니다. ④는 깜찍이의 제안에 동조하면서 별명이 친근감을 표시하는 의미를 갖는다고는 했지만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는 '마음이 친구와 나를 이어주는 끈'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별명의 의의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깜찍이의 제안에 동조하지도 않았다.

12. [출제의도] 글을 적절하게 고쳐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의 글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의 '적잖게'는 기본형인 '적잖다'를 활용한 경우이다. 그러므로 원형을 밝혀 쓰는 것이 적절하다. ㉢의 '~으로써'는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는 조사인데, 문맥을 고려할 때 자격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으로서'가 들어가는 것이 옳다. ㉣은 영어식의 표현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문장 형태인데 우리말의 표현으로는 부적절하다. ㉤은 문맥을 고려할 때 '붙이다'에 해당하므로 '붙여'로 고치는 것이 옳다. 반면 ㉡의 '질책(叱責)'은 '꾸짖어 나무람'이며, 고쳐 쓰기의 방안으로 제시된 '지시(指示)' 역시 '가리켜 보임'의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조언'이나 '격려'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3. [출제의도] 시간 표현에 관한 국어의 문법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 따르면 '진행상'과 '완료상'의 구별 기준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어떤 동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막 끝났느냐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의 '말라 간다'는 것과 ㉡의 '불고 있다'는 것은 문맥상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동작을 뜻하므로, '진행상'에 해당되고, ㉢의 '먹어 버렸다'는 것은 문맥상 밥을 먹는 행동을 이제 막 끝냈다는 뜻이므로 '완료상'에 해당된다.

14. [출제의도] 우리말의 띄어쓰기 규정을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41항에 보면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고 했으므로, ②에서 두 개의 조사가 결합된 '-에서부터'는 모두 그 앞말인 '마을'에 붙여 써야 맞다.

[오답풀이] ① '지'는 '동작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제42항의 규정대로 띄어 쓰는 것이 맞다. ③ 제43항에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라도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는 붙여 쓸 수 있다고 했으므로, '10월 31일'처럼 붙여 쓰는 것이 맞다. ④ 제43항에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고 했으므로, 옷처럼 짝을 이루는 물건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인 '벌'은 띄어 쓰는 것이 맞다. ⑤ '등'은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이므로, 제45항의 규정대로 띄어 쓰는 것이 맞다.

[15 19] 현대시

< > (가) 박재삼, '추억에서'
(나) 안도현, '고추밭'
(다) 강우식, '어머니의 물감상자'

15.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 드러난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가난하던 어린 시절의 추억 속에 새겨져 있는 어머니의 한스러웠던 삶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나)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고달픈 삶을 살았던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다)는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 시장에서 물감장사를 하시던 유년기의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세 작품의 공통점은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유년기의 추억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16. [출제의도] 구체적인 시구가 작품 속에서 어떠한 함축적 의미나 이미지를 지니는지를 추리하는 문제이다.

(가)에서 화자는 달빛에 반사된 옹기의 반짝임에서 '말없이 글썽이는' 어머니의 눈물을 연상하고 있다. 이는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을 글썽이게 되는 화자의 연민 어린 마음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에서 화자는 더운 여름 고추밭에서 고되게 일하시는 어머니의 고생을 알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런 화자이기에, 어머니 어깨 위에 내리쬐는 여름 햇살을 보면서 마음 아팠을 것이다. 따라서 '글썽거리는 햇살'이란 표현에는, 어머니의 눈물 어린 삶과 슬픔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어린 아들의 연민이 담겨 있다.

17. [출제의도] 시의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이 아니라, 가정(假定)이나 의문형 종결어미로 진술하고 있다. 단정적인 종결어미 '-다'를 피해 '-가', '-꼬' 등의 어미로 끝남으로써 시가 지나친 감상에 빠지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오답풀이] ① '울엄매야 울엄매',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오명 가명' 등과 같은 시구를 반복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③ '해 다 진 어스름', '골방', '손시리게 떨던가' 등에서 화자의 궁핍한 처지를 느낄 수 있다. ④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 '빛 발하는 눈깔들', '탈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의 시어들을 통해 어머니의 한과 슬픔을 부각시키고 있다. ⑤ '진주 장터', '진주 남강', '울엄매' 등과 같은 시어들을 통해 어린 시절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8. [출제의도] 중심 시어를 중심으로 시적 형상화 과정을 파악해 보는 문제이다.

고추 농사를 짓는 일은 허리가 아픈 농사일이다. 키 작은 고추 그루에서 고추를 따느라 허리를 굽힌 채 일해야 하며, 더구나 산비탈 경사진 곳에 있는 밭에서 일하는 것은 분명 힘들고 고된 일일 것이다. 그늘 한 점 없는 고추밭에서 쪼그리고 앉은 채 따가운 햇볕에 그을리며 일하는 어머니가 아들은 안쓰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화자는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우려 하나, 만류하는 어머니 때문에 고추밭 근처를 '고추잠자리'처럼 맴맴 돌기만 할 뿐이다. 이와 같이 화자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를 편하게 해 드리려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지, 고향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소망 때문에 '어른'이 되고 싶은 것은 아니다.

19. [출제의도] 제시된 작품을 다른 작품과 연관 지어 비교·감상해 보는 문제이다.

(다)에서 시장은 어머니가 장사를 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파는 것은 단순한 물감만은 아니고, 사람들에게 물감에 담긴 아름다운 색과 꿈을 함께 파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감을 파는 '시장'이라는 공간은 어머니의 고달픔이 묻어난 현장으로 보이지 않는다. <보기>의 '고향 마을'도 구체적 정서가 담겨있는 공간은 아니다.

[오답풀이] ②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상품을 판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과 꿈을 판 것이다. '꽃치'도 세속적인 것이 아닌 봄의 '들꽃'과 같은 아름다운 자연에서 삶의 가치를 찾는다. 따라서 둘 다 아름답고 넉넉한 마음의 여유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나'는 어머니가 남겨준 '물감 상자'를 보면서 어머니를 추억하며 그리워한다. '훈필' 역시 '꽃치'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다.

[20~23] 언어 제재

<출전> 김광일, '청둥호박과 굴통이'

20. [출제의도] 주어진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올바로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대중가요의 노랫말이나 인터넷 언어에 나타나는 질적 저하 현상 등 대중매체에 나타나는 국어 경시 풍조와 그로 인한 우리말의 질적 저하 현상을 비판하면서, 독자들에게 우리말을 오염시키는 대중매체의 언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③, ④, ⑤는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이해한 반응이다. 하지만 ②의 경우, 이 글에서 지엽적으로 다룬 내용으로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서 벗어난 반응이다.

21. [출제의도] 글쓴이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대중가요의 노랫말의 특징을 언급한 부분의 일부인데, 그 핵심은 '나' 중심으로 여긴다는 것, '나'의 감정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④는 '그런 충고는 집어 쳐', '내가 말하는 건 그게 내 마음일 뿐', '웃음만을 짓기엔 지쳤어 화가 나' 등에서 '나'를 중심으로 여기고 '나'의 감정만을 중시하는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②, ③, ⑤는 '나'를 중심으로 주변 상황을 바라보는 내용이 아니라, '그대', '당신', '우리'를 염두에 두면서, '자연'이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자세를 드러낸 노랫말들이다.

22. [출제의도] 글쓴이의 생각에 담겨 있는 전제를 추론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중요한 것은 대중매체의 언어가 '국어를 오염시킨다'는 것과 '국민

심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 즉 언어 우위설이 전제되어 있다.

[ ] ②은 언어의 체계성을 가리키는 말, ④ 언어 자연 발생관을 가리키는 말, ⑤는 언어와 민족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들은 모두 ㉡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③ 언어의 형식은 '음성'이고 언어의 내용은 '의미'라는 것인데, 이 말도 ㉡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23. [출제의도] 모르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서 그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사전 풀이를 유심히 살펴보면, 이 글의 ⓐ가 눈길[1]의 ㉮의 의미로 쓰인 말임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보기>를 보면 눈길[1] 외에도 눈길[2]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 이 두 단어는 음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동음이의어라는 것, 눈길[2]의 '눈'이 길게 발음된다는 것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중학교 국어생활 과목에서 배운 문법 지식을 동원하여 눈길[1]의 '길'과 눈길[2]의 '길'이 둘 다 접사가 아니라 어근이라는 사실, 따라서 두 단어가 모두 합성어라는 사실을 판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눈길[1]은 파생어, 눈길[2]는 합성어라는 설명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⑤ "나는 아버지의 따가운 눈길을 피했다"고 할 때의 '눈길'은 '시선'을 가리키므로 <보기>의 사전 풀이에서 눈길[1]의 ㉯에 해당한다.

[24 29] 갈래 복합(수필 + 고전시가)

< > (가) 신일철, '수묵화의 행복론'

(나) 윤선도, '만흥(漫興)'

24. [출제의도] 두 편의 글을 읽고 글쓴이의 공통적인 생각을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글쓴이는 현대인들이 현란하고 화려한 생활을 추구하기 때문에 행복을 얻기 힘들다고 하며 담담하고 소박한 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나)에서는 자연 속에 들어가 욕심을 버리고 소탈하게 살면서도 부러워 할 것이 없다고 하여 두 편의 글에서 모두 화려하지 않은 삶 속에서 느끼는 행복의 소중함을 언급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과 ⑤는 (가)에서 찾을 수 있는 생각이고, ②와 ④는 두 글과 직접적인 연관을 찾기 어렵다.

25. [출제의도] 글의 구조와 특징을 파악하고 그것을 구상하는 과정을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렇게 해서 ~ 더욱 절실해진다.'까지를 문제 상황의 심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의 서술이 어떤 하나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현대인의 욕구와 진정한 자기를 찾는 것 사이의 격차가 커지는 과정을 연쇄적으로 심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분류의 방식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26.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사례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경우에 합당한 사례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거짓 욕구'가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 '진정한 자기를 살지 못하는 비극'이 나타나야 한다. 이 두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은 ④인데, 일확천금을 노리고 복권에 집착하는 것은 '거짓 욕구'라고 볼 수 있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한 것'은 '진정한 자기를 살지 못한 비극'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7. [출제의도]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고 다른 작품 속에서 이와 유사한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는 '자연 친화'라고 할 수 있다. 자연 속에 살면서 산을 바라보며 임이 오더라도 이처럼 좋을 수는 없다고 하며 화자는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태도는 ③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청산과 유수, 청풍과 명월 속에서 살아가는 만족스러움을 읊고 있다.

[오답풀이] ① 윤리적인 삶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② 인생이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간다는 느낌, 즉 무상감을 노래하고 있다. ④ 벼슬하지 않는 선비지만, 임금이 승하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슬퍼하고 있는 노래이다. ⑤ 비가 그친 뒤에 열심히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격려가 담긴 노래이다.

28.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둘째 수에는 산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산이 '말씀도 하지 않고, 웃음을 짓지도 않는다고' 표현한 것이 의인화의 기법이다. 셋째 수에도 하늘을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하여 자신에게 강산을 지키는 일을 맡겨 주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29. [출제의도] 어구나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청빈'의 의미는 '성품이 깨끗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 가난함'이다. 따라서 '청빈한 삶'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은 ⓓ의 '보리밥 풋나물'이라고 할 수 있다. 매우 소박하고 어찌 보면 가난한 살림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는 소재이다.

[30~34] 예술 제재

<출전> 이광표, '처마 곡선 - 쪽 펼쳐진 부챗살의 경쾌함'

30. [출제의도]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의 내용을 통해 덧서까래의 모퉁이 부분이 귀서까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둘이 서로 대용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② 귀서까래는 다른 서까래보다 높게 뽑아내었다고 하였다. ③ 서까래가 펼쳐지면서 처마가 우아한 곡선미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④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서까래 위의 서까래가 덧서까래이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31. [출제의도] 글의 전개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1문단에서 '기와지붕 처마선의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는 화제를 제시한 후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된 점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분석적 전개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대상과 관련한 상반된 견해가 나오지 않았다. ③ 문답의 형태는 있지만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지는 않다. ④ 권위자의 학설을 소개하는 부분이 없다. ⑤ 서까래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례로 뒷받침하지 않았다.

3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날아갈 듯 부드러운 자태와 관련하여 보았을 때 '경쾌하다(날아갈 듯 가볍고 상쾌하다.)'와 '유려하다(물 흐르듯 아름답다)'를 사용할 수 있겠다.

[오답풀이] '소박하다(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수수하다)'나 '단아하다(단정하고 아담하다)' 등은 의미의 관련성이 부족하다.

33. [출제의도] 주어진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 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은 건물의 좌우 부분인 귀서까래 부분이 같은 높이 임에도 불구하고 낮아 보이는 착시이다. 착시는 눈의 이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정상적인 현상이다. ①은 만곡 착시의 예로, 가운데 점에 집중하다보면 상대적으로 끝부분이 휘어져서 낮아 보인다.

[오답풀이] ② 배경에 따라 선의 길이가 달라져 보이는 착시이다. ③ 보는 방향에 따라 입체감이 반대로 나타나는 착시이다. ④ 각도 방향 착시의 예에 해당한다. 실제로는 직선의 연결이 위의 것이 맞지만 가운데 사각형의 영향으로 아래의 것으로 보인다. ⑤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 길이가 달라져 보이는 착시이다.

34. [출제의도] 주어진 개념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는 곡선미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휘어서 곡선미를 형성하였고, ⓑ는 휘어진 목재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처마를 휘어지게 하여 곡선미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⑤와 같이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39] 사회 제재

<출전> 이극찬, '상징 조작'

35. [출제의도] 필자의 집필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정치적 지배 방법의 종류와 그 특징을 설명하면서 정치적 지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상징 조작의 종류를 설명하고는 있으나, 그 장단점을 밝혀 우열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②는 옳지 않고, 상징 조작 자체가 비난 받을 일로 설명하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③도 옳지 않으며, 새로운 정치 기술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④ 또한 옳지 않으며, 현대 정치학이 이룬 학문적 성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⑤ 역시 옳

않다.

36. [ ] 제시된 글의 정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다.

<보기>는 지배자가 물리적인 강제력을 발동하는 장면이다. 1문단을 보면 물리적인 강제력은 지배자가 자기의 명령이나 지도를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데 실패했을 때 최후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은 물리적인 강제력은 피지배자들의 반발을 야기하기 쉽다고 한 1문단에서, ②는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물리적인 강제력이 아닌 상징 조작임을 설명한 마지막 문단에서, ③은 물리적인 강제력은 가장 열등한 지배 방식이라고 한 1문단에서, ④는 물리적인 강제력은 피지배자들의 반발을 야기하기 쉽다고 한 1문단에서 잘못된 의견이란 것을 알 수 있다.

37.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다.

3문단에서 상징 조작은 미란다와 크레덴다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고, 마지막 문단에서 상징 조작은 피지배자의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미란다와 크레덴다는 모두 피지배자의 자발적인 복종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8. [출제의도] 제시된 글의 정보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다.

3문단에서 '기념관'은 '미란다'라 하였으므로, '현충사'는 상징 조작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2문단에서 일반적인 상징의 의미를 '어떤 것을 대신 나타내주는 사물이나 기호'라고 하였으므로 ①의 '신호등', ③의 '화장실 표지', ④의 '사이렌 소리'는 일반적인 상징에 해당하고, ②의 '수영'은 상징과는 무관하다.

39. [출제의도]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규합(糾合)'의 뜻은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이다. '남을 깨치어 이끌어 줌'이란 뜻을 가진 단어는 '계도(啓導)'이다.

[40 43] 고전 소설

< > 작자 미상,'옹고집전(壅固執傳)'

40. [출제의도] 사건 전개 및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장면은 '도사'가 '실옹가'를 징벌하기 위해 허수아비로 만들었던 '허옹가'를 다시 허수아비로 되돌리는 부분이다. 이는 비현실적인 상황 설정이므로 ①이 정답이다.

[오답풀이] 쫓겨난 '실옹가'가 신세를 한탄하는 부분에서 배경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주제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며, 장면의 빠른 전환은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문에는 사건이 순차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인물의 성격 변화 양상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②, ③, ④, ⑤는 작품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41. [출제의도]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토대로 정서와 태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늙은 하인'이 쫓겨났던 '실옹가'가 다시 찾아와 문전에서 큰소리치고 있는 '실옹가'를 보고 놀라 집안으로 내달으며 '허옹가'에게 한 말이다. '면종복배'는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한다'는 뜻이므로 '늙은 하인'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42.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소재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실옹가'의 개과천선을 위해 만들어진 '부적'은 '허옹가'를 다시 허수아비로 만드는 주술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보기>의 '전령'은 '취발이'를 굴복시키기 위해 양반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오답풀이] <보기> '전령'은 '말뚝이'의 요청에 의해 '생원'이 써 준 것이지만, 상황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적'이나 '전령' 모두 원래의 제작 의도대로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②,③,④,⑤는 잘못된 설명이다.

43. [출제의도]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고 작품에 대한 평가와 반응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작품에는 불교적인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중심 사건은 불효막심한 '실옹가'가 '도사'의 술법에 탄복하고 개과천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⑤가 정답이다.

[44~47] 과학 제재

<출전> 김희준, '쿼크와 유비쿼틴'

44.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의 [A]부분에는 쿼크를 묶어 양성자나 중성자를 이루고, 다시 원자를 구성하는 힘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연 상태에서 쿼크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나 전자기력은 약해지고, 반면 핵과 관련된 강한 힘이 작용하여 쿼크 입자들을 묶는다는 사실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④는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 쿼크가 1백37억 년 전 우주의 빅뱅에서 생겼다는 사실이 제시되어 있다. ② 2문단에 쿼크의 존재를 밝히는 일이 1963년 겔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제시되어 있다. ③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6문단에 수소, 탄소, 질소, 산소의 원자들이 결합되어 아미노산을 만든다는 사실이 제시되어 있다.

45. [출제의도] 생략된 정보를 문맥의 흐름에 의하여 추리하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겔만이 쿼크의 존재를 밝히는 과정을 생각하며 김춘수의 시 '꽃'을 떠올리고 있다. 제시된 과정을 보면 겔만이 1백37억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묻혀 있던 쿼크의 존재를 밝혀내고 나서야 '우주의 기본 입자'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를 생각할 때 '인식의 주체'인 '나'에 해당하는 것은 '겔만'이며, 인식함으로써 의미를 갖게 된 '꽃'에 해당하는 것은 '쿼크'라고 연결을 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에는 '나', ⓑ에는 '꽃'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그'는 의미를 갖기 전의 대상을 의미한다. ③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의미를 찾는 과정에 해당한다. ④, ⑤ '몸짓'은 의미를 찾기 전의 상태에 해당한다.

46.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정보들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A]에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쿼크가 모여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고, 또 양성자와 중성자는 다시 결합하여 원자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양성자와 중성자는 상대를 포함하는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 각 입자들 간의 구성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는 것은 ③이다.

47.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에 대한 반응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B]에 제시된 정보와 <보기>에 제시된 정보는 연관성을 갖고 있다. [B]는 유비쿼틴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시했으며, <보기>는 그에 관한 내용을 심화하여 이해하기 위한 자료이다. 제시된 반응 중 ⑤는 유비쿼틴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지문의 정보를 언급하고 있으며, 단백질 분해와 관련된 질병을 언급한 <보기>의 정보를 적절하게 관련시켰으므로 옳은 반응으로 볼 수 있다.

[48~51] 인문 제재

<출전> 조성오, '철학 에세이'

48. [출제의도] 제목을 붙이는 방식을 활용하여 글의 주제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인간의 인식은 감성적 인식이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그것에 기초해서 이성적 인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감성적 인식과 이성적 인식은 대립적이지만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결합되면서 인간의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인간의 인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49. [출제의도] 글의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서술상 특징을 찾아보는 문제이다.

이 글은 인간의 인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채플린의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감성적 인식과 이성적 인식의 차이점을 들면서 그 개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사용된 서술상 특징을 <보기>에서 고르면 예시와 대조를 설명하고 있는 ②가 된다.

50. [　　] 문맥에 따른 어휘의 의미를 다른 상황에 적용시켜 이해하는 문제이다.

과 마찬가지로, ②는 '크기, 규격 따위가 다른 것에 합치하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오답풀이] ①은 '(…을) 가족의 일원으로 예를 갖추어 데려오다.'는 의미로, ③은 '어떤 말이나 예측이 틀림이 없다.'는 의미로, ④는 '육감이 틀림이 없다.'는 의미로, ⑤는 '어떤 대상의 내용, 정체 따위의 무엇임이 틀림이 없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51. [출제의도] 작품에서 제시된 세부 정보를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감성적 인식은 감각 기관을 통해 대상의 외형적 측면을 단편적으로 인식하고, 이성적 인식은 이해력을 통해서 대상의 근본 성질(사물의 본질)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이성적 인식은 감성적 인식이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감성적 인식의 대상과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감성적 인식과 이성적 인식은 모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결합되면서 인간의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감성적 인식과 이성적 인식의 이러한 특징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②이다.

[52　56] 현대 소설

<　　> 현진건, '빈처(貧妻)'

52. [출제의도] 소재나 배경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비단옷'을 해 주고 싶고, '양산'도 사 주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현재 아내가 가지고 싶지만 갖고 있지 않은 소도구임을 알 수 있다. 궁핍한 경제 사정을 암시하는 도구인 셈이다.

[오답풀이] ① 책상과 책이 반드시 저작가(예술가)의 용도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이 있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집에서 글을 창작하는 저작가 지망생인 '나'의 창작 및 독서 활동과 긴밀한 소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② 이 작품에서 중요한 소재 중의 하나가 '모본단 저고리'이다. 이는 아내가 갖고 싶고 입고 싶은 옷이지만, 생계 유지를 위해 전당국 창고에 잡혀야 하는 물건이다. 따라서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아내의 욕구를 접어야 하는 아내의 사정(살림의 경제적 사정)을 드러내어 준다고 볼 수 있다.

53. [출제의도] 서술 시점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 서술자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1인칭 '나'이다. '나'는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따라서 작중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오답풀이] ②는 작가 관찰자 시점에 관한 설명이다. ③ '나'의 생각을 배제한 채 아내를 관찰만 하고 있는 시점은 아니다. '나'의 생각(심리)과 판단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④는 전지적 작가 시점.

54. [출제의도] 작품의 주제 의식을 고려하여 감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작품에서 주제 의식은 다양한 측면에서 도출될 수 있다. 남편에 초점을 맞추면 가난한 작가의 초상을, 아내에 초점을 맞추면 궁핍한 살림 속에서도 애정을 가지고 묵묵히 남편을 지켜보는 아내의 아름다운 내면을 읽어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③은 적절하지 않다. '나'의 가정이 '(사회적으로)소외되어 있는 가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지문의 중간 부분이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이야기가 부부지간에 오고 가고 있다. 예컨대 '암만 구차하기로서니 싫증이야 날까요! 나는 한번 먹은 마음이 있는데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먹은 마음'은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는 부부의 믿음으로 볼 수 있다.

55.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심리를 파악하고 이를 적절한 어휘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남편은 겉으로 강한 척하다가(가면) 사실은 '아내를 위하는 마음이 있노라'며 자신의 속마음을 약하게나마 털어놓고 있다.(진상) 아울러 그러한 변명하는 듯한 자신을 스스로 '가소롭다'며 비웃는다. 따라서 ⑤에는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나름대로의 구실을 대어 그 까닭을 말하다'는 뜻의 '변명'이 가장 적절하고 '변호(辯護)'는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변호'는 '남의 이익을 위하여 변명하고 감싸서 도와줌'의 뜻이다.

56. [출제의도] 바꾸어 쓴 후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 창의적 사고 문제이다.

[A]를 <보기>와 같이 바꾸어 쓴다면, 아내의 속마음이 '일기장'을 통해서 잘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내의 목소리가 두드러져 '나' 또는 작품 밖의 '독자'에게 잘 전달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서 '나는 그이가 좋다'와 같은 '나'에 대한 아내의 긍정적 기대와 평가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긍정적 기대와 평가)이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이 글의 핵심은 이상(기대)과 현실의 차이에서 갈등하는 '나'(또는 부부)의 모습에 있다. ② 아내의 생각이 부각되는 것은 적절하지만, 이로 인해 갈등이 더 증폭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57~60] 기술 제재

<출전> 박진희, '오랜 습관이 신기술을 이기다.'

57.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에 대한 반응이 적절한지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드보락 자판은 쿼티 자판보다 더 합리적이고 우수한 공학 기술이지만, 먼저 보급되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쿼티 자판에 밀려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 글에서는 그 이유를 이용자들이 지니고 있는 기존 방법에 대한 관성(습관)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 기술보다 더 합리적인 기술을 개발한다고 할 때, 합리성만 우위에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기존 기술에 대한 습관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응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58. [출제의도] 주어진 사실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대상의 특성과 둘 사이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쿼티 자판과 드보락 자판의 특성과 차이점을 묻고 있다. 쿼티 자판은 기존 자판의 철자 막대 엉킴을 해결하면서 등장한 자판으로 철자의 엉킴 문제는 해결했으나 약한 손가락으로 자주 쓰는 철자를 쳐야 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그리 합리적이지 못한 자판이었다. 그 뒤를 이은 드보락 자판은 자주 쓰는 철자들을 자판의 가운데에 배열하여 강한 손가락으로 자주 쓰는 철자를 치게 하였기 때문에 여러 모로 쿼티보다는 합리적인 기술임을 드러내 보였다. 그러므로 ②에서 쿼티 자판이 약한 손가락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은 본문의 내용과 다르다.

[오답풀이] ① 2문단의 내용 및 삽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드보락 자판에서 'student'나 'head' 등 우리가 쉽고 흔하게 쓰는 단어를 치려고 할 때, 이를 구성하고 있는 철자들은 자판의 가운데 한 줄에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손은 고정시킨 채 손가락만 움직여도 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④ 4~5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4문단에 있는 드보락 자판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59. [출제의도] 주어진 사례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드보락 자판은 쿼티 자판보다 합리적인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보급된 쿼티 자판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이는 둘 다 비디오 녹화 재생 방식인데 시장 장악이 빨랐던 VHS 방식에 밀려 베타 방식이 사라진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경제에서 시장의 선점(先占)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오답풀이] ①은 훨씬 편한 기술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기술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예이다. ②는 하나의 재화를 고집하지 않고 더 취향에 맞는 재화로 관심을 옮기는 예이다. 즉, 기존의 것에 대해 관성을 고집하지 않는 경우이다. ③은 ①과 유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⑤는 사회의 여론이나 권위자의 말에 의해 취향이 바뀌는 예라고 할 수 있다.

60. [출제의도] 문맥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선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들어 있는 문장은 '새로운 기술을 선택함으로써 드는 추가 비용보다 더 많은 이익이 있어야만 이용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선택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에는 새롭게 추가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다 없앴다는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상반되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어 효과가 없어지는 일'이라는 의미의 '상쇄'가 가장 적합하다.